

다산포럼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완화하려면

중소기업 구조조정 불가피

서구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0년대 이후 크게 떨어져 현재 대략 20~40% 정도다. 노조 조직률은 하락했지만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아직 60~80% 정도 된다. 서구의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에서는 단체협약이 노조원뿐만 아니라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서구 노동운동이 노조원의 이익만이 아니라 가급적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역사적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이 한국처럼 10% 수준이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은 90%에 달한다. 따라서 프랑스 시민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원이 아니면서도 노조의 단체협약 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다.

산업별 노조의 임금협약에 의해서 기업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관철되면 저생산성의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구조조정될 수밖에 없다. 물론 산별 노조는 산업 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금이 높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임금 자제(wage restraints)도 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별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하는 나라에서는 단체협약 임금에 의해 한계 중소기업은 항시적 구조조정애 직면한다.

독일은 2015년 최저임금제를 처음 도입할 정도로 과거 단체협약 임금의 위력이 강력했다. 독일 중소기업이 강력해진 이유 중 하나는 독일 노조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중소기업에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프랑스로처럼 단체협약 적용률이

90%라면 단체협약 임금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구조조정되거나 퇴출되었을 거다. 그러나 산별 단체협약 임금에 의해서 저생산성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되고 퇴출되었던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저생산성 중소기업이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계속 존존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업 수와 고용 비중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교섭력은 매우 취약한 현실적인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대신 사회복지 지출 늘려야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은 임금 주도 성장이다. 불법 파견노동 금지, 비정규직 차별 제한, 근로 감독 강화 등 여러 가지 방

법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개선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미치는 구조조정 효과 강력하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충격을 완화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 조래하는 고용 감소를 상쇄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정부 지출의 고용 창출 효과가 민간 소비, 민간 투자보다 크고 사회복지 지출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분야다. 우리가 저생산성의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분의 구조조정을 주저하는 것도 사회복지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복지 재정 지출을 늘릴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구조조정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인색하게 투자를 했고, 서구에서 항시적으로 진행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중소기업 구조조정도 없었다. 사회복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저생산성 부분을 구조조정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때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16.4% 오른다. 남은 과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내년부터 본격화할 최저임금의 구조조정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느냐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2018년 예산안 심사가 중요하다.

기고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

추석 연휴, 즐길 거리 많은 전남에서

명 이상이 이동해 휴일이 짧은 날보다 이동인구가 많았다. 차츰 IT가 발달하며 표를 구하기 위한 밤샘 풍경은 사라졌지만 고향과 친지 등을 찾기 위해 명절 이동은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올 추석을 맞아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예매 결과, 총 공급좌석 374만석 중 127만석이 예매돼 34%의 예매율을 보인 것은 연휴가 길어서 이동이 분산된 것으로 보여 좀 더 쾌적한 이동과 여유시간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여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최근 3년간 부동의 1위는 '여가 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이었다. 국민의 여가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노동이나 그 밖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무언가에 참여해 수행하는 활동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고용동향'을 보면, 한국의 2016년 기준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 35개국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 많고 취업자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회원국 중 2번째다. 추석을 기점으로 올해 가장 기간 연휴가 가능한 10월 황금 연휴에 여행 계획을 묻

는 설문조사가 숙박예약 앱으로 실시됐는데 그 결과가 흥미롭다. 응답자 중 약 90%가 이번 연휴에는 2박3일 여행을 할 예정이고 그 응답자의 89%는 국내 여행을 떠났다고 응답했다. 여행의 동행자로는 부모·부부·아이 동반 등 가족이 52.3%였고, 방문지는 전라도와 강원도를 선호하였다. 전남은 너른 들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갯벌과 연안으로 이어지는 해안선, 비옥한 토지와 수산업이 발달해 물산이 풍부하고 정겨운 풍속 등 문화와 역사가 면면히 흐르는 지역이라고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산소 음이온이 많고 산세가 아름다운 산악과, 수만처럼 점점이 떠있는 섬 경관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과 정감을 느끼게 할 자원이자,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지리산을 비롯해 월출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국립공원 비율이 가장 높다. 섬은 2016 조사 기준 2165개로 전국의 절반이 훨씬 넘는다. 추석 연휴에 가족과 친구들과 가을 전남의 관광지는 '남도여행 길잡이'에 잘 소개되어 있다. 국립공원이나 섬 관광 자원 뿐만 아니라, 전남은 22개 시군마다 특색 있는 문화 관광지가 산재해 있고, 정다운 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다도

해, 갈대숲, 여자만, 강진만, 대소 등 자연 풍광과 여수 밤바다, 순천만 정원, 사할, 전통 민속 마을, 농촌 체험 마을, 박물관, 미술관, 드라마 배경지 등 문화적 자원이 분포해 있다. 추석에는 무료임당이 가능한 곳이 많고 연휴기간 동안 한복을 입고 오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하는 곳도 많다. 민족 유산의 큰 명절 올 추석에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여가를 즐기시기 바란다. 가족과 함께 전남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연과 풍경을 감상하는 여행을 통해 휴식과 휴양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 열심히 일하느라 갖지 못했던 여행을 즐겨라! 풍부한 전남에서 즐기며 가족 간 사랑과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행 관광 경쟁력 1위 국가인 스페인 속담에 '기쁨을 감추면 그만큼 기쁨이 감소한다'는 격언이 있다. 여행을 통해 가족과 함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란다. 추석 연휴에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은 명절을 맞이해 오랜만에 내 집에 온 손님처럼 관광객을 맞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본다. 인정 넘치는 전남이 관광객을 통해 기쁨을 나누고 싶은 까닭이다.

社說

실수요자 울리는 아파트 투기 단속 못 하나

광주 아파트 분양 시장이 심상치 않다.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데 짓기만 하면 다 팔려 나가고 수천만 원의 옷돈까지 불어 거래된다. 전국에서 이동식 불법 중개 업소인 '뺨다방'까지 몰려들어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에는 아파트 1만6700여 호가 공급됐으며, 올해도 비슷한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분양은 지난 8월 말 현재 766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6호에 비해 140호가 줄었다. 신축 아파트 대부분은 분양 즉시 완판 행렬을 이루고 곧바로 수천만 원의 옷돈이 불는다. 남구 효천 지구의 한 아파트(111㎡)는 4층이 5300만 원, 15층은 6500만 원, 광산구 쌍암동 한 아파트(101㎡) 15층은 87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시장에 나왔다. 투기 세력 탓이다. 부동산업계는 전매 제한 기간 이후 명의변경이나 입주 후 전세로 풀리

는 물량 등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와 투기 세력의 비율은 4대 6에서 3대 7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일보가 입수한 북구의 한 아파트 거래 내역을 보면 전매가 제한된 1년 동안에도 무려 5번이나 거래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350만 원이던 프리미엄이 3500만 원으로 상승했고 7명의 공인중개사가 불법 행위를 개입했다. 뺨다방과 부동산 중개 업체를 거쳐 가격이 부풀면서 정작 무주택 시민이 정상적인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이 광주 지역 부동산 시장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투기 세력이 청약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서류를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외부 투기 세력이 지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자체들의 불법 전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도 절실하다.

추석 명절 선물 기왕이면 우리 농축산물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민족은 고대사회에서부터 친척과 이웃이 명절 음식을 서로 나누었다. 그런 아름다운 풍속은 계속 이어져 지금은 고마운 사람끼리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주고받는다. 1950년대만 해도 우리네 추석 선물은 대부분 농산물이었다. 막을 것이 귀했던 시절, 맛과 영양을 함께 선물할 수 있는 농산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마음이 넉넉해지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설탕, 조미료, 밀가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 스타킹, 비누, 치약 같은 공산품으로 바뀐다. 1980년대엔 고급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끌었다. 이후 과일과 한우 등 농축산물이 각광을 받았으나 지난해 9월 28일부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 농가의 시름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설 명절 때만 해도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산물 선물 수요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서로 나누었다. 그런 아름다운 풍속은 계속 이어져 지금은 고마운 사람끼리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주고받는다. 1950년대만 해도 우리네 추석 선물은 대부분 농산물이었다. 막을 것이 귀했던 시절, 맛과 영양을 함께 선물할 수 있는 농산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마음이 넉넉해지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설탕, 조미료, 밀가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 스타킹, 비누, 치약 같은 공산품으로 바뀐다. 1980년대엔 고급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끌었다. 이후 과일과 한우 등 농축산물이 각광을 받았으나 지난해 9월 28일부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 농가의 시름도

無等鼓

나주 혁신도시를 지나 반남 들녘을 가로지르는 820번 지방도를 달리다 보면 왼편으로 봉긋 솟은 고분들이 눈에 들어온다. 덕산리 고분군이다. 작은 동산 크기의 고분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궁금해진다. 인근 신촌리 9호분에서는 1917년 일제의 발굴을 통해 왕의 상징인 금동관(국보 295호)과 금동신발 등이 출토된 바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봉분의 주인공은 마한을 통치하던 정치 지도자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영산강 유역 들녘

를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지난해 6월, 이곳을 찾았을 때 한참 눈길을 머물게 한 유물은 영동리 1호 분에서 발굴된 9구의 고대 인골이었다. 영석을 버리다 큼직한 봉분을 뚫었을 터인데 이들이 유골 그대로 유리장 안에 놓여 있으니 참 안타까웠다. 설명문에는 “...이 중 5개소의 무덤 방에서 고대 인골이 출토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결혼을 통해 관계가 맺어진 근 가족자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집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마한인의 얼굴

1500여 년 전 마한 신촌리, 대안리, 복암리 등지에 크고 작은 고분들이 산재해 있다. 복암리 3호분은 '아파트형 고분'으로 불린다. 400여 년에 걸쳐 웅관묘와 수혈식 석관, 횡혈식 석관 등 다양한 형태의 40여 개 묘물이 한 고분에 조성돼 있다. 한때 '복암리 3호분 96석실'은 큰 의미를 갖는다. 기존 학설과 달리 백제가 마한 지역을 강제로 병합하거나 직접 통치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유물이기 때문이다. 고분군과 지척에 세워진 '복암리 고분 전시관'은 3호분을 실물 크기로 만들어 발굴 당시의 매장 형태

인의 얼굴이 복원됐다. 나주시가 '제3회 마한축제'에 맞춰 영동리 1호분에서 발굴된 여자의 얼굴을 3D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복원해 공개했다. 되살아난 '마한 귀족 여인'의 얼굴을 보면 요즘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숙한 용모다. 올해는 신촌리 금동관이 출토된 지 100년이 되는 해, 마침 국립 나주박물관에서도 '신촌리 금동관, 그 시대를 만나다'를 주제로 특별전을 열고 있다. 금동관을 실물로 직접 보고 마한의 역사 속으로 흠뻑 빠져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송기태 여행부장 song@

정춘 특·특

나는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고 싶다



장소희 동신대 융합정보보안전공 1학년

지돼 있다.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 생리컵이나 값비싼 친환경 생리대를 구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불안해하면서도 여전히 기존의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다. 더 불안한 것은, 이같은 불안함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못할 거라는 전망 때문이다. 생리대에 유해 물질이 있을 경우 여성의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역학 조사를 통해 생리대 유해 물질과 여성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같은 연구에 몇 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특히 생리대 접착용 글루에 들어있는 성분인 발암 물질이라는 주장이 있는데도 식약처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런 엇갈린 주장 때문에 생리대 혐오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생리는 어린 여아에서 여자가 되었을 때를 알려주는 신호이자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달에 한 번 겪는 일이다. 건강할 아

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며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고도 한다. 과거 고등학교 시절, 생리가 규칙적으로 나오지 않아 고민이었던 적이 있었다. 첫 신호는 통증과 함께 왔다. 평소 생리일에는 아프지 않던 아랫배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왔다. 그 다음엔 점점 생리일이 불규칙해지다가 양이 줄어들게 되었다. 예정 일에서 1주일이 지나니 불안해져서 결국 생애 처음으로 여성의학과를 방문하게 되었다. 의사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생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서 최근에 비슷한 증상의 손님이 늘어났다고 했다. 최근 생리대 관련 보도를 보면서 혹시 생리대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원활한 생리 주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생리통이 심하다면 플라스틱 소재와 유독 물질 세계 사용을 줄여야 한다. 환경호르몬을 발생하여 우리 몸의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생리가 불규칙하다면 영양결핍이나 스트레스, 급격한 활동량

등을 의심해야 한다.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다. 같은 자세를 3시간 이상 유지하면 신체 활동이 억제되기 때문에 몸의 순환이 느려지고 자궁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생리가 멈추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꼼꼼하게 챙기기는 힘들다. 생리대 문제도 아무런 의욕이 없다 해도 바쁜 현대 여성들이 생리대를 버리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결국은 기업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해주지만 바랄 뿐이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하고,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제품 성분의 유해성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고 감시해야하면서 여성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 여성의 건강은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정확한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생리컵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비롯해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를 기대한다.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